



제목	Ancient Syria: A Three Thousand Year History
발행언어	영어
발행처	Oxford University Press
발행일	2014. 5. 6.
저자	Trevor Bryce
출판국가	영국
페이지수	400
ISBN 또는 ISSN	978-0199646678

내용 요약

고대 시리아는 유프라테스 강 상류 유역에서 수에즈의 북쪽까지로서 남북이 길고 동쪽은 시리아, 북쪽은 아라비아 사막, 서쪽은 지중해에 둘러싸인 지방을 가리킨다. 현재의 국명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요르단, 레바논, 시리아, 터키 남동부가 포함된다. 이 지대에서는 옛부터 일정하게 통일된 지배적인 미술양식은 탄생되지 않고, 여러 민족의 정치적·군사적 동향과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아나톨리아, 에게 세계 등의 영향이 각 시대의 중요한 경향으로 굳혀졌다.

기원전 27~24세기 시리아의 고대 도시국가인 에블라(Ebla)는 지금의 레바논과 메소포타미아의 북부 지역 일부 등 은과 목재가 풍부하게 산출되는 도시국가들을 지배했고 이란·이집트·수메르 등과도 교역했다. 이후 히타이트와 바빌로니아, 아시리아의 지배를 받다가 기원전 538년 키루스 대왕에 의해 페르시아에 복속되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주변국의 침략으로 시리아는 카난인, 엘람인, 페리시테인, 히브라이인, 페니키아인, 셀레우코스 조(朝), 기독교 문화가 혼합된 형태를 보이고 있다. 끝으로 제 5장의 기원전 1세기경 중국과 유럽을 연결하는 실크로드의 교역도 시로 번영을 누렸던 팔미라는, 서쪽의 로마 제국과 동쪽의 페르시아 제국 사이에서 태어난 완충국가로서 두 제국의 문화가 융합된 형태로 발전하였다. 특히 팔미라의 제노비아(Zenobia)는 로마 제국 동방의 여왕으로서 '아라비아의 클레오파트라'라 불린 그녀는 이집트를 영유했고 소아시아 일대에까지 그 세력을 떨쳤다.